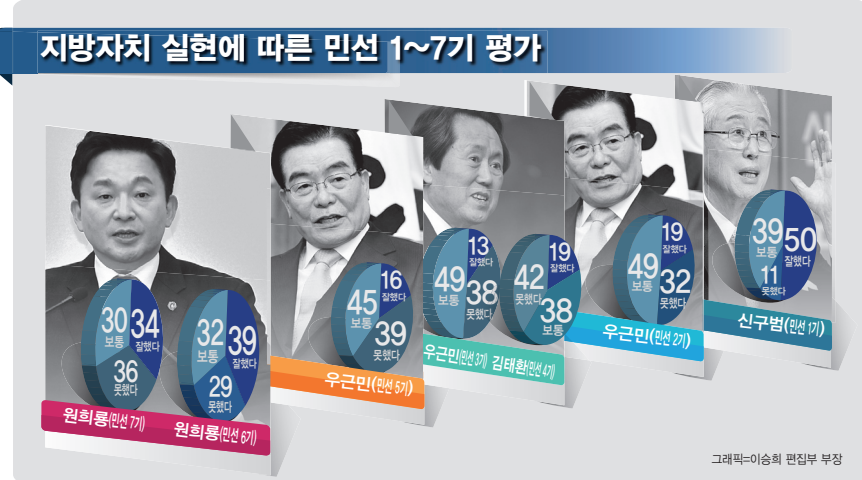


시민 자치의식 제고·참여 확대... 정부 지원은 빈약

■ 지방자치 부활 30년, 제주도민 100인에 묻다



빈약한 지방재정 등 걸림돌
 제주 지방자치 발전 위해선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켜야”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제주 지방자치의 성장한 반면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본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정·관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 관련기사 2면

설문결과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0년간 분야별 변화상을 묻은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각각 시민자치 의식이 고취(61명)되고 주민참여가 확대(58명)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앙정부 지원 강화는 17명만이 “그렇다”고 답해 빈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부활에 따른 주민생활영역 변화 우선순위로는 민주시민행정과 시민참여가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시민참여는 모두 59명이 1·2순위로 선택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 주체별 역량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시민의 자치역량과 지방의원 의정 역량에 각각 57명이 ‘그렇다’고 응답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행정역

49명이 선택해 비교적 비중이 컸지만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변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38명에 그쳤다.

지난 30년간 제주지방자치 운영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빈약한 지방재정’이라는 인식이 높았고, 제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32명)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제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추가 의견 자유기술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을 피력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역사회내에서 제기됐던 자조적 비판과 실망감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 실현에 따른 민선1기부터 7기까지의 평가를 묻은 질문에는 신구범 지사가 재임했던 민선 1기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한 생활자치, 소규모자치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코로나19 ‘연택트 시대’ 소규모 생활자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민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기초자치단체를 더 세분화해 주민 밀착형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특별자치도’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코로나 극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2021년 신축년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다. 신축년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씩씩한 ‘흰소’의 해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암울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씩씩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사진은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한우와 흑우 사이로 떠오르는 해돋이를 담았다. 기획취재기자

“위기는 곧 기회... 제주 청정마케팅 강화해야”

위드 코로나시대 도민 삶의 질·경제활성화 집중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났다. 앞으로 남은 겨울철 3차 대유행을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제주지역 경제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 관련기사 8면

코로나 쇼크는 현재진행형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했지만 코로나로부터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이러한 위기 속에 제주사회 구성원은 완벽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속

에서 ‘청정이미지 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416명(격리 중 확진자 218명, 격리 해제자 197명, 타지역 이관 1명)이다. 12월 한달간 성당과 교회, 사우나, 학교·학원,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신규 확진자 335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8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α를 오는 3일까지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새해에는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하면서 도민 안전이라는 바탕 위에 지역경제 회복 및 신산업 개발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며 “청정과 공존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비대면 등 분야별 전환과 혁신을 중점 방향으로 삼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와 맞닿아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사회인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시대’를 맞아 신축년 제주는 이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1·3차산업의 구조를

개편, 지속가능한 신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완벽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청정 이미지 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신년호 지면 안내	
2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3면	원희룡지사 신년 대담
5면	신축년 제주 흑우
6·7면	지방자치 부활 컬러취업
8면	위드 코로나
9면	제주경제 기상도
10·11면	신춘문예(당선소감·시·시조)
14·15면	신춘문예(소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1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정 제주, 안전 제주를 위해
 집안행사·동창·동문·향우회 등
친목 모임 자제,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경조사 5대방역수칙

1. 축의금·조의금만 보내고 전화통화 등으로 마음 전하기
2.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말고 의뢰기관 방문하기
3. 부득이하게 참석할 경우 짧은 시간동안 머무르기
4. 육지부 지인, 친척 초청 자제하기
5.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